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매거진

FoMo

Forced Mobilization

2022년 9월호

Vol.27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National Memorial Museum of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Occupation

FoMo

Forced Mobilization

이슈

03 아베 신조 전 총리 사망 후
한일관계의 향방을 듣다 | 호사카 유지

일제 강제동원 특별전
『조선인, 일제 광부가 되다』 특집

06 조선인, 일제 광부가 되다

09 관람객들과 함께 한
『조선인, 일제 광부가 되다』

10 소장유물로 보는 징용부터 귀환까지

역사관 소식

12 광복절 기념 특별 추가 상연
‘포모와 함께 알아보는 강제동원’

탐방기

13 포모가 소개하는
대구 근대 골목

유관기관 소개

16 잊지말아야 할 그들의 이야기
희움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도서 소개

18 일제 강제 동원, 이름을 기억하라!

역사관 사용설명서

20 주요 행사 일정
다시보기 & 미리보기

22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애독자란

23 숨은단어 찾기



새로운 미래를 바라고 바라보다 「감」 편

전통적으로 감나무는 경의, 자애, 소박을 의미합니다. 풍요로운 한가위를 바라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마음을 감나무에 담았습니다.

일러두기 FOMO는 일제의 강제동원을 뜻하는 Forced Mobilization의 약칭입니다. 일제강제동원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벌이기 위해 자행한 인적·물적 동원 및 자금통제를 말합니다. **강제동원**은 잊어서도, 잊어버려서도 안 될 인권유린의 뼈아픈 역사입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매거진

발행일 2022년 9월 15일 통권 제27호 | **발행인** 김용덕 | **편집인** 박철규 | **편집위원** 강창석, 김성곤, 김영진, 박수란, 박태성, 안덕자, 정두나, 조미숙 | **기획·편집** 김민균, 반선영, 장민성, 추경아, 오다솔 | **디자인** 성준문화 | **홈페이지** <http://museum.fomo.or.kr>

아베 신조 전 총리 사망 후 한일관계의 향방을 듣다

최악의 냉각기였던 故 아베 전 총리 집권기
아베 전 총리 사망 후 한일관계의 향방은?



호사카 유지
(保坂祐二, Hosaka, Yuji)

- 일본 도쿄 출생
- 도쿄대학 공학부 졸업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정치학박사
- 2003년 8월 한국 체류 15년 만에 한국으로 국적을 옮김. 현재 한국인

- 전)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 (2015.2~2018.2)
- 전)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2021.2 정년퇴임)
- 현)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대우 교수
- 현)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 현)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자문위원
- 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

지난 7월 8일 아베 전 총리가 나라현에서 참의원 선거 거리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일본 최장기 총리이자 세계적 정치 거물의 사망이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한 논평이 연일 쏟아졌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에게 아베 전 총리의 강제동원 정책과 한일관계 전망을 들어본다.

아베 전 총리 시절 일제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과 대응은 무엇이었나요?

아베 전 총리가 주도한 강제동원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고 나머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위안부합의¹⁾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고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²⁾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기사 다 정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한일 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아직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2015년의 한일위안부합의는 피해자 입장에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진정 어린 사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위안부합의를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 총리에 의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진정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일본이 평화헌법 9조 개헌³⁾ 등으로 군국주의, 우경화 일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 자민당은 현 기사다 총리와 아소 자민당 부총재 체제로 재편성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제9조 개헌에 소극적입니다. 제9조 개헌을 한다면 할 일이 많아 다른 정치적 일정을 소화하기가 어렵고, 제9조 개헌이 국민투표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될 경우 자민당이 치명적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민당 내 제9조 개헌에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아베 전 총리뿐이었습니다. 역대 총리 중에서도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람도 아베 전 총리밖에 없습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평화불교 세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9조 개헌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개헌 세력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야당으로서 개헌 논리를 통해 세력을 확대하려 하지만 정당 규모가 크지 않아 두 야당이 개헌에 적극적이라고 해도 개헌이 발의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제9조 개헌은 자민당과 공명당의 소극적 태도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베 전 총리 사망이 한일관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또한 앞으로의 한일관계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자민당 내 극우세력의 후퇴를 뜻합니다. 자민당 내 극우세력은 아베파를 중심으로 존재했는데 그의 사망 후 아베파를 이어받을 만한 인물이 없는 상태입니

다. 그러므로 현재 아베파는 집단지도체제로 변환되었습니다. 한편 기사다파 등 자민당 내 온건파 세력 안에는 지도급 인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일본정치는 온건파들이 주도하게 될 전망이 큼니다. 당분간 한일관계는 아베 전 총리를 추모하는 분위기 속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27일 아베 전 총리의 장례를 전후로 한일교류가 본격화되며 정치적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 내 전범기업들의 자산 현금화 행방에 따라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강제동원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한일 양쪽에서 일본 기업과 한국인 피해자들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위변제⁴⁾는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을 사실상 배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일본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 2015년 12월 28일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사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것을 일컫는다.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에서 자금을 출현한다는 내용과 한국 정부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이 합의의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자금의 성격을 배상금이 아닌 인도적 지원금이라 발표했다.

2)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10년에 걸쳐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양국 간의 국민 재산권리 및 이익, 청구권에 대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합의하였다.

3) 본 조문에는 전쟁의 포기, 전력의 포기,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9조에 따르면 일본은 UN이 인정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권리는 갖지만 행사하지 못한다. 아베 내각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헌법 해석을 도입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일본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국제사회의 평화가 위태롭다고 판단될 경우에 교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4) 대위변제는 빚을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 혹은 한일 기업의 성금 및 기금을 모은 재단이 2018년 손해 배상 권리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배상을 한 후 일본 전범 기업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관련 법안은 2019년 문희상 전 국회의장에 의해 발의되었다.

일제 강제동원 특별전 조선인, 일제 광부가 되다

2022. 8. 12. ~
역사관 6층 기획전시실



개막 행사에서 사무처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애환을 담은 구슬 사운드와 석탄스틱을 활용한 퍼포먼스가 공연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많은 조선인이 강제동원되어 떠나면 땅으로 떠나야 했다. 누군가의 부모·자녀·손자녀였던 그들은 목적지조차 모른 채 죄인처럼 끌려갔고, 평범한 삶을 빼앗긴 채 일제의 이름 없는 노무자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험과 기억이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과거의 슬픈 기억’이 우리의 현재를 구성하는 ‘역사의 기록’이 된다.

글 | 역사관 편집부



관계자들이 전시개막을 축하하며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학여사의 설명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관계자들이 전시 체험을 하고있다.

특별전 개막과 광복절을 기념하여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8월 14일 15일 3D펜아트·캘리그래피·VR·자율주행·드론 체험 프로그램에
방학을 맞은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캘리그래피



3D 펜아트



VR



자율주행



드론



관람객들과 함께 한 『조선인, 일제 광부가 되다』



류현준, 류시윤 님

역사적인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게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최지연 님

가슴 아픈 역사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할게요.



강지후 님

강제동원되신 분들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강지호 님

역사관을 처음 방문했는데, 광복절이라
더 뜻깊은 하루가 되었어요.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종종 방문할게요.



김나현 님

역사관을 관람하면서 일제의 탄압을 받고 일했던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큰고통을 받았는지
새롭 게알 게되었어요. 독립 을이루려고 노력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진행 | 역사관 추경아, 오다솔

소장유물로 보는 징용부터 귀환까지

이번 호에서는 특별전 『조선인, 일제 광부가 되다』에서 공개된 유물 중 5점을 골라 탄광·광업 관련 강제동원의 시작부터 귀환까지 얽힌 이야기를 풀어봤다.

강제동원의 시작

이 징용고지서는 윤병열(창씨명 茂松秉烈)이 북해도탄광기선 주식회사 소라치(空知) 탄광에서 군사 물자 생산 업무에 종사하도록 북해도청장관(北海道廳長官)이 발행한 것이다.



윤병열의 징용고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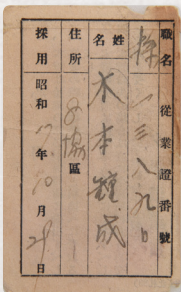
징용고지서발부번호 제 2267호

- 본적: 충남 홍성군
- 이름: 무송병열(茂松秉烈)
- 종사해야 하는 총동원업무를 수행하는 지정군수회사 또는 지정 군수공장 명칭: 북해도탄광기선 주식회사 소라치(空知) 탄광
- 종사해야 하는 총동원 업무: 군사상 특히 필요한 총동원 물자 생산에 관한 업무
- 종사해야 하는 직업: 군수사업종사자
- 종사해야 하는 장소: 내지(日本)

징용고지서가 발행된 1944년 4월 25일은 북해도탄광기선 주식회사가 군수회사법에 의해 군수회사로 지정된 날이다. 군수회사법은 기업과 노동자를 국가의 명령으로 '징용'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군수회사로 지정된 사업소에서 근로자가 생산책임자의 지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로부터 징계 제재를 받게 했다. 이 징용고지서를 통해 군수회사는 철저하게 국가의 통제 하에 놓여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제동원지에서의 생활

이 종업원증은 북해도탄광기선 주식회사 유바리(夕張) 광업소에서 발급한 것으로, 피해자 박종성의 창씨명(木本鐘成)과 광부번호(13890), 채용날짜(1942년 10월 29일), 거주지(8協區)등이 기재되어 있다.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중에서는 아직까지 자신의 광부번호를 기억하는 사례가 있는데, 현장에서부터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리고, 식사 전에는 번호를 크게 외쳐야만 배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증언을 통해 강제동원지에서 조선인 노무자는 인격체가 아닌, 노동력을 공급하는 '숫자'로 취급받았던 당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박종성의 종업원증

이 차용증은 회사측에서 발급한 것으로, 노동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데 140원을 차용했으며, 이를 향후 자신의 임금에서 공제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소생의 가동(稼動) 임금에서 공제해 달라, '광업소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피해자는 "탄광에 처음 도착해서 함바"에서 생활하게 됐을 때, 회사가 옷·모자·이불 등을 주면서 같이 준 것이다. 기재 금액은 월급에서 깎아야 했으나, 큰 돈이라 깎는 것이 힘들었다"고 증언했다.²⁾ 동원지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지급되었기에, 일을 해도 빛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다. 차용증은 회사 측이 노무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도 이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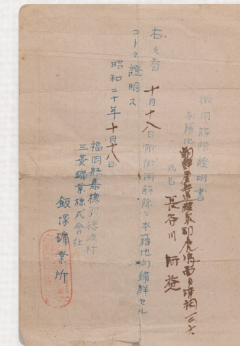


윤영옥의 차용증

- 1) 함바[はんば]: 토목 공사나 광산 등의 현장에 있는 노무자 합숙소
- 2) 평균 한 달 급여가 30원 전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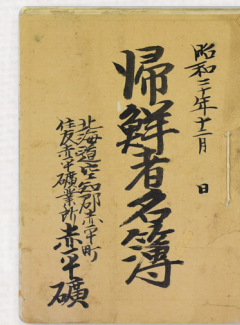
징용 해제와 귀환

피해자 장사익의 징용해제 증명서로 본적지, 창씨명, 발행처가 기재되어 있다. 장사익이 1945년 10월 18일부로 징용 해제되어, 후쿠오카현(福岡県) 소재 미쓰비시(三菱) 광업주식회사 이즈카(飯塚) 광업소에서 본적지로 귀환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방 이후 귀국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2~3개월 혹은 한참 뒤에 비로소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다.



장사익의 징용해제증명서

이 명부는 1945년 12월 홋카이도 아카비라 광업소에서 조선으로 귀환하는 자의 인명이 적힌 것이다. 11명의 인명이 기재되어있고, 항목은 번호, 본적지, 현 주소, 씨명, 연령, 직업 순으로 구성되어있다. 수록 인원은 총 1,024명이다. 귀환 당시 노무자들은 조선인 자치회를 결성했는데, 자치회 대표와 회사 측이 명부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지참하였다. 이를 통해 명부의 작성시기와 송환방법이 당시의 집단송환정책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스미토모(住友) 아카비라(赤平) 광업소 귀선자(歸鮮者) 명부

명부는 단신자(單身者) 명부와 가족 동반자 명부로 나뉘는데, 당시 탄·광산에서 노무자들의 도주를 방지하고 기간이 만료된 숙련 노무자들의 정착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족이주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 명부는 사례 연구를 위한 자료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출처: 사진으로 보는 강제동원 이야기 일본 홋카이도(北海道)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강제동원기록총서1 강제동원명부해제집,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글 | 역사관 반선영

광복절 기념 특별 추가 상연 '포모와 함께 알아보는 강제동원'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여 매주 토요일 11시에 상연되는 '포모와 함께 알아보는 강제동원' 인형극을 추가 상연했다. 인형극에서는 강제동원의 4가지 유형인 군인동원, 노무동원, 군무원동원, 성(性)동원과 보편적 인권의 의미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달했다.

Interview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자주 놀러오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에 대해 배우고 느끼며 우리나라의 소중함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많은 분들께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어요.

최현주 님

글 : 역사관 추경아

포모의 투어일지

포모가 소개하는 대구 근대 골목 투어



어휴 덥다, 더워!
포모가 친구들에게 대구의 일제강점기 역사를 소개해주려고 해!
대구야 명성만큼 정말 HOT한 도시였어!
포모가 직접 투어한 뒤 추천하는 탐방코스! 함께 떠나볼까?



대구읍성터

대구읍성 터는 옛날에 성이 있던 자리라는 뜻이야.
대구읍성은 1590년(선조 23년)에 왜구 침략에 대비해 토성(흙성)으로 쌓았다가 임진왜란으로 파괴된 후 1736년(영조 12년) 석성(돌성)으로 다시 만들어졌다고 해. 모르고 지나친 돌바닥이 알고 보면 우리를 지켜준 흔적인 거지.



대구근대역사관

이곳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의 상징으로 조선 식산은행 대구지점이었어. 조선식산은행은 1932년 조선총독 부의 여러 산업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었지. 지금은 대구의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이 됐어.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피해자의 고통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건립된 곳이야.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평화와 여성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시민들의 노력과 성원으로 건립된 곳이라 더 의미 있는 곳이야!



구 교남YMCA회관

1914년 지어진 건물로 일제시기의 건물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야! 3.1운동 당시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회합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산장려운동, 신간회 운동 등 다양한 경남 민족운동의 거점으로 활용되었다고 해. 2013년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어!



서상돈 고택

일제의 경제침탈에 맞서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던 서상돈 선생의 생가야.

*국채보상운동은 1907~1908년 대구를 중심으로 일어난 주권수호운동으로 일본의 강요로 들어온 빚을 갚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운동이야. 그러나 일제의 탄압과 고위 관료 및 부유층의 불참 등으로 실패했어.



이상화 고택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진정한 봄을 맞이 위해 일제에 저항했던 이상화 시인이 살던 곳이야.

계산성당

경상도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야. 대구는 당시 수도인 한양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종교 탄압을 피하기 좋았어. 그래서 일찍부터 종교 세력을 넓혔지. 계산성당은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 가톨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



동산선교사주택

1898년 즈음 미국인 선교사 아담스와 존슨이 동산을 구입해 병원과 신학 대학을 설립했어. 동산 선교사 주택 3채는 이곳에 머물던 의료선교사들의 이름을 따서 블레어 주택, 챔니스 주택, 스위즈 주택이라 불러. 현재는 선교.의료.교육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무는 대구 최초로 심어진 사과나무라고 해.



3.1만세운동길

3.1운동을 준비한 학생들이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 도심으로 모일 때 이 길을 이용했어. 길 곳곳에는 항일운동 당시 사진들이 전시돼 있어서 항일운동의 정신을 몸소 느낄 수 있어.





▲ 희움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전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0 www.heeummuseum.com

▼ 과거



▲ 과거 - 현재



▶ 현재



▶ 함께하는 현재

희움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은 일본군 '위안부'의 아픈 역사를 '과거-현재-미래' 순으로 전시하고 있다.

잊지말아야 할 그들의 이야기 희움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대구·경북에서도 피해자들이 연이어 정부에 피해자임을 등록하였다. 대구의故문옥주 할머니가 지역에서는 최초,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피해자임을 밝혔다. 1995년 대구여성회에서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지역에 계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했다. 그리고 광병원이 1995년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평생무료진찰을 약속하고, 지역의 대학생이 자원봉사를 시작하여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1997년 지방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는 단체로 출범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시민모임은 현재까지 총 27분의 피해자 할머니와 인연을 맺고 피해자 생존 지원에서부터 문제해결까지 폭넓은 활동을 해왔다.

시민모임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통하여 평화와 여성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는 對일본정부 활동과 문제해결에 있어 '위안부'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對한국정부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고 뜻을 함께하는 여러 단체와의 연대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22년 현재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회부하여 문제해결을 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한편 시민모임의 부설기관인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201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故김순악 할머니께서 "내가 죽어도 나를 잊지 말아 달라"는 유언과 함께 5천여만 원을 기탁하여 씨앗기금이 마련되었다. 할머니의 뜻에 동참한 많은 피해자분들과 시민들의 모금을 바탕으로 2015년 건립될 수 있었다. 희움 역사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픈 역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피해자와 시민들의 노력을 잊지 않고자 전시와 교육·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희움 역사관에서는 2021년과 2022년 모두 여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전시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해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증언展>을 진행하였고, 돌아오는 10월에는 <ODD ADD DD: 낯섶 번역기展>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전시에서 VR과 AI라는 뉴미디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시간과 '방'이라는 공간, 그리고 증언까지 새롭게 보여주었다면, 돌아오는 전시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증언 이전까지 '그 사이의 삶'에도 주목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정의되어 '특별한' 취급을 받던 여성들이 사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그와 동시에 이들의 고통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이번 전시에서 보여줄 것이다.

글 | 희움 제공

일제 강제 동원, 이름을 기억하라!



정혜경 글, 최혜인 그림 (사계절)

이 책은 누군가 자신을 소개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사실 사람이 아닌 '일정 시 피징용자 명부'였죠. 이 명부는 일제가 일으킨 '아시아-태평양 전쟁'으로 전장에 강제 동원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장부입니다. 한편으로 이곳에 적힌 이름보다 실리지 못한 이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책에서는 명부 속 수많은 이름 중에서도 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국내를 포함해 일본·러시아 사할린 등으로 흩어져 힘든 시간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본에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일제에 강제 동

원되었고,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가에 대해서는 책을 읽으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대해 양심적으로 반성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본인들의 이야기가 일부 실려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나라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역사를 바로잡고 이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제 강제 동원, 이름을 기억하라!』는 어린이들에게 아픔의 역사를 잘 전달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책입니다. 명부 속 피해자들의 이름의 개수를 여기서는 '뼀'로 비유하면서 인간에게도 뼀이 소중한 만큼 그들의 이름 역시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피해자들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곳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미래 세대들과 함께 우리 모두 그들의 이야기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일정 시 피징용자 명부'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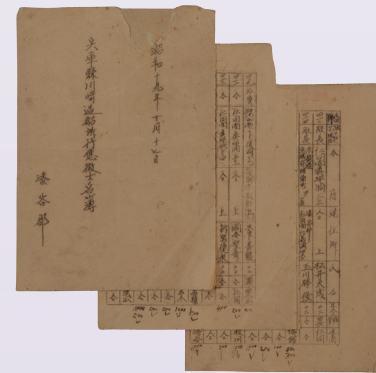
한국 정부가 1953년에 제2차 한일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만든 명부이다.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으로, 총 6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 23만 명의 이름과 강제동원된 장소, 귀환 여부 등이 적혀있다. 2013년 주일한국대사관 서고에서 발견됐다. '일제강제동원조사위원회'에서 10여 년간 조사과장을 역임한 정혜경 작가가 그 가치를 알아보고 이 명부를 주제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책으로 엮어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춰 보는 거울’이라고 하거든.
거울이 깨끗하면 잘 비춰 볼 수 있지만, 먼지가 덕지덕지 묻어서 더러우면 뿌옇게 보이겠지.
그래서 역사의 거울은 늘 깨끗하게 닦아야 하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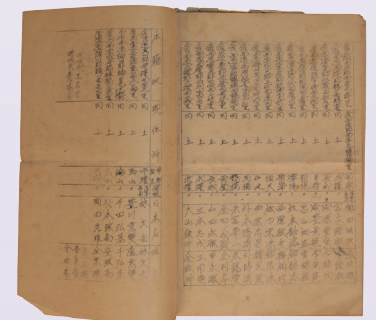
- 『일제 강제 동원, 이름을 기억하라!』 中 103p -



역사관 전시실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힌 다양한 명부를 볼 수 있어요!



효고현 가와사키조선소행 응징사 명부



자카르타 마사자와대연명부

글 | 역사관 정민경

주요 행사 일정 다시보기 & 미리보기

다시보기

01 독립기념관과 함께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展



- 날짜 : 연내 계속
- 내용 : 독립기념관과 협업체 매달 보훈처가 선정하는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을 개최한다. 지난 8월에는 강제하, 이웅해, 백남준, 최명수 독립운동가를 소개했다. 강제하는 1919년 창성지역 3·1운동을 주도했고, 대한독립청년단을 결성해 단장으로 활동했다. 이웅해는 1922년 남만한족통일회의에 대한독립군 대표로 참가해 통의부 탄생에 기여했다. 백남준은 1922년 남만한족통일회의에 광복군총영 대표로 참가해 통의부 탄생에 기여했다. 최명수는 1924년 남만주 통합 독립운동단체로 탄생한 정의부 결성에 기여했다. 9월에는 안원규, 정원명 선생을 소개한다. 전시는 매달 교체되며 12월까지 개최한다.

02 인문학 특강



- 날짜 : 8월 6일(토)~9월 3일(토), 매주 토요일
- 내용 : 지난 8월 6일부터 약 한 달간 매주 토요일에 일제강점기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1강 근세 일본인들의 조선관	일본 사상사에서 나타나는 일본인들의 조선관 소개
2강 일제강점기 여성 항일운동	조마리아, 김마리아, 남자현, 권기옥, 유관순, 박차정 소개
3강 개항기 부산의 수산업 변화	일제강점기 조선인 주주로 구성된 명태고방 소개
4강 일본의 한국 침략 서막, 동학혁명군 진압	일본 정부가 동학혁명군 토벌을 통해 대륙침략의 발판을 마련한 내용 소개
5강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세계 인식	일제강점기 해외여행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인이 바라본 각 나라 소개

03 관람객 만족도 조사



- 날짜 : 7월 20일(수)~11월 10일(목)
- 내용 : 오는 11월 10일까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역사관에서 진행되는 전시, 교육 행사의 만족도와 시설 이용의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역사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04 세계시민교육 교원 직무 연수 연계 프로그램



- 날짜 : 8월 11일(목)
- 내용 : 지난 8월 11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해 세계시민교육 교원 직무연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역사관은 상설전시 관람, 일제 강제동원 영상 상영, 주요 소장유물 소개, 교육 프로그램 체험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05 부산·울산·경상남도 교육청 인권교육 협의회 연계 프로그램



- 날짜 : 8월 19일(금)
- 내용 : 지난 8월 19일 부산·울산·경남교육청의 장학사 및 장학관이 역사관을 방문하여 인권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학예사와 함께하는 상설전시 해설 및 소장유물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미리보기

01 전국합동위령제

- 날짜 : 10월 13일(목)
- 내용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역사관 추모공원에서 전국 합동위령제를 진행하고 있다.

02 제24회 UN평화축제 홍보관 운영

- 날짜 : 10월 15일(토), 16일(일)
- 내용 : UN평화공원 일대에서 UN평화문화특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03 가을맞이 문화행사

- 날짜 : 10월 1일(토)~3일(월) 예정
- 내용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04 국외추도순례

- 날짜 : 2022년 11월 7일(월)~11일(금) 4박 5일
- 내용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유족들과 함께 사이판으로 국외 추도순례를 떠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8월 30일(화)부터 9월 23일(금) 18시 까이다.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대연동 산 204-1)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 관람시간 : 09:30 ~17:30(최종입장 17:00)
Tel 051 629 8600 Fax 051 629 8619 홈페이지 http://museum.fomo.or.kr

역사관 시설 무료 대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관을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무료로 빌려 드립니다.

- 1층 : 올림의 방
- 5층 : 회의실, 교육실, 휴게실
- 6층 : 휴게실
- 문의 : 051) 629-8600

오브제 인형극

강제동원 4가지 유형을 소개하고 보편적 인권의 의미를 전달하는 인형극입니다.

- 장소 : 7층 어린이체험관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자원봉사자 모집

함께 만들어 갈 역사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 : 1365 자원봉사자포털 <https://www.1365.go.kr/>
- 문의 : 051) 629-8600, 8621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FoMo나 역사관에 바라는 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동봉된 엽서, 이메일(museum@fomo.or.kr), SNS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숨은 단어 찾기

아래에서 강제동원과 관련된 단어 7개를 찾아주세요.
정답은 역사관 인스타그램(@fomo.museum)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아	른	이	가	습	기	말	의	신
노	욱	아	궁	자	히	철	락	위	주
군	무	원	동	원	참	치	근	안	진
동	바	동	제	병	붉	차	리	부	선
세	시	모	원	렬	강	호	동	처	복
벽	탄	잔	수	근	제	중	산	님	도
계	광	미	서	위	징	검	다	라	로
수	도	산	인	조	용	암	약	수	터
나	객	수	사	권	가	유	마	조	모
무	잡	놀	이	태	리	정	다	롬	쥐



* QR코드를 스캔하여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